



영화 속 기술과 기억, 그리고 인간 01 **<애프터 양> 기억에 담긴 역사, 역사에 뿌리내린 기억**

글. 김서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

연재 영화 목록

1. <애프터 양>, 코고나다, 2022
2.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마이클 알메레이다, 2017
3. <에이아이>, 스티븐 스필버그, 2001
4. <환송대>, 크리스 마르케, 1962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는 SF 등 일련의 장르적 특성을 빌어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현해오곤 했다. 본 연재에서는 영화가 묘사하는 기술의 진보로부터 도출되는 낙관적인(유토피아) 혹은 비관적인(디스토피아) 전망에 주목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호출하는 기억을 둘러싼 인간이라는 존재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영화로 최근 극장에서 관객과 만났던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을 들여다본다.



<애프터 양> 2022
 감독 : 코고나다
 출연 : 콜린 파렐, 조디 터너 스미스,
 저스틴 H. 민

호모 사피엔스(인간)와 테크노 사피엔스(로봇)가 공존하는 근미래의 배경으로 하는 <애프터 양>에서 제이크(콜린 파렐)와 키라(조디 터너 스미스) 가족은 자신들과 함께 살던 안드로이드 인간인 양(저스틴 H. 민)이 불시에 작동을 멈춰버리는 상황을 맞이한다. 맛벌이로 입양한 중국계 딸인 미카(말레아 엠마 찬드로위자야)를 극진히 돌보던 양의 존재가 돌연 부재하게 된 제이크 부부의 고민으로부터 영화는 출발한다.

인간과 로봇이 긴밀히 유착하여 살아가는 테크노 산업이 자리하는 <애프터 양>의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영화는 이른바 미래를 대변하는 첨단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우거나, 이로부터 파생되는 현란하고 역동적인 광경을 전시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주로 카메라를 고정한 채로 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는 장면들 대부분은 인물 간에 오가는 잠잠한 대화나 디지털 장치에 담긴 기억을 담 아낸다.

양을 수리하기 위해 테크노 사피엔스들을 공급하는 ‘브라더스&시스터즈’라는 거대 독점 자본으로 찾아간 제이크는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선다. 테크노들은 고장이 난 채 오래 방치되면 부패하고, 제품의 효용성을 잃으면 사측의 기준에 따라 판별되어 폐기 처분이 되기도 한다. 산업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들 기업에 양이라는 존재는 별다른 가치를 더는 창출하는 공산품도 아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양이 지닌 가치에 대한 물음은 성립할 수 없다.

제이크는 이후에 인류의 문화와 역사의 양식을 간직한 문화 테크노이자 몇 초간의 기억을 간직하는 양이라는 테크노의 가치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찾아가게 된다. 내재하여 있는 메모리 뱅크가 양을 수리하고 복원하려는 과





정에서 발견되고, 제이크는 디지털화된 기억 장치 속에서 양의 기억을 쫓는 데 전념한다.

이러한 기억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영화는 점점 더 과거로 향하게 된다. 이는 곧 신원을 추적하는 여정이자, 그러한 기억들이 어떻게 <애프터 양>의 세계와 제이크의 가족, 더 나아가 인류에 뿌리를 내려왔는지를 탐색하는 여행이기도 하다. 입양한 딸이 중국 문화나 유산을 잊지 않고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매했던 양은, 그러한 문화적 유산과 기억을 파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매우 귀한 문화 테크노다. 양은 제이크-키라 부부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시무룩해진 미카에게, 양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나무와 가지를 언급하며 위로한다. 이들이 곧 연결되면서 역사가 되며, 미카 또한 가족 나무의 일부로서 이러한 가지처럼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에서 제이크가 탐닉하는 의미심장한 산물인 중국 차를 둘러싼 곧 제이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차에 관하여 논하는 양과의 대화가 기록된 기억에서, 제이크는

자신이 대학을 다닐 때 차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꺼낸다. 차를 찾는 한 남자의 행적을 다루는 20세기 문서를 거론하며 그에 끌렸다고 말하는 그는, 차에는 향과 맛뿐 아니라 역사도 있다고 말한다. 찻집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계승, 전수되어 온 오랜 사업이었으며 그것 또한 그의 가족에 깊숙이 뿌리내린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애프터 양>에는 오랜 역사를 관통하고 곳곳에 뿌리내리어 엄연히 존재했지만, 글로벌 북반부, 혹은 서구라 불리는 지형 속에서 어느덧 잊히거나 단절되거나 계승되거나 기록되지 못한 디아스포라의 감각이 자리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애프터 양>은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한 무난하고 잔잔한 가족 드라마 형태를 취한다. 해당 장르를 즐겨보던 이들이라면 특별히 새로울 요소는 없이 익숙하고 전형적으로 비칠 만도 하다. 여기서 <애프터 양>은 삶을 구성하는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탐색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억을 매개로 한 관계의 상실, 사랑, 정체성에 주안점을 맞춘다.

차에 관하여 논하는 양과의 대화가 기록된 기억에서, 제이크는 자신이 대학을 다닐 때 차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꺼낸다. 차를 찾는 한 남자의 행적을 다루는 20세기 문서를 거론하며 그에 끌렸다고 말하는 그는, 차에는 향과 맛뿐 아니라 역사도 있다고 말한다. 찻집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계승, 전수되어 온 오랜 사업이었으며 그것 또한 그의 가족에 깊숙이 뿌리내린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제이크 가족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소유하던 양이 기능 문제로 정지한 것에서 출발했던 영화는, 어느새 양으로부터 인류가 품고 공유해나가야 할 기억이 무엇인지의 문제로 범주를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을 되돌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는 잊고 새 출발을 하자는 말을 했던 키라 또한 영화의 중반부에 양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양이 남긴 흔적들을 되새기게 된다. 양은 결국 온전히 복원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양이 저장한 문화적 유산은 그가 남긴 기억을 통해 단절되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막연한 향수나 집착이 아니다. 현재를, 미래를 만드는 씨앗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거나 전수됐는지를 비추어보는 것이기도 하다.

감독 코고나다는 비디오 에세이스트로서 오즈 야스지로, 로베르 브레송, 잉마르 베리만 등의 고전 감독들에 대한 필름 에세이를 작업해왔다. 미국 모더니즘 건축의 메카로 불리는 소도시 콜럼버스를 배경으로 한국계와 현지인을 다룬 <콜럼버스>로 데뷔하였고, <파친코>를 공동 연출하며 주목을 받은 그는 모더니즘 건축 양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애프터 양>을 포함하여 자신의 영화 속 건축물들이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말에 그는 ‘모더니즘 운동은 그 기원에 인간의 진실과 의미를 탐구하려는 열정을 품고 있다’(‘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 “그게 무엇이든, 세상의 일부가 되어”, 씨네21, No. 1359)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연상케 하는 이 영화의 시각적 스타일, 그 이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근원적인 물음을 내포한 영화로써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여러 포스트담론의 시대라 불리는 조건 속에서 어느덧 옛 사조나 양식으로 여겨지곤 하는 모더니즘을 소환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는 코고나다의 성향은 그의 작업에도 짙게 배어한다.

<애프터 양>은 근 미래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를 전면화하며, 그러한 기술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나 휘황찬란한 구경거리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 미래 세계를 근 미래의 암울한 디스토피아나 혹은 최첨단의 기술 문명의 수혜로 도래한 유토피아로 묘사하지 않는다. 코고나다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기술 지향적인 테크노크라트의 정신으로 미래를 그리지 않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의, 미래를 가능하게 만든 과거의 토양을 반추한다.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와 코고나다라는 감독을 사뭇 흥미롭게 붙잡고 싶게 만든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